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0호 현대불교  
2010년 11월 17일(음 10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제 뿌리만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제 나무를 살립니다

포항 지역의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 간부 여러분, 비치호텔 사장님과 모든 분들이 노고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원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애쓴 것이 애쓴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한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장하시며) 감사합니다.

개원을 하고 오늘 점안식을 마쳤습니다. 점안식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내면의 진정한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큰스님들께서는 점안식을 하실 때 귀를 뚫고 눈을 뚫어서, 찾아오는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과 마음이 모두 통하고 전달이 되게 해서 이롭게 해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모든 일체를 다 갖춘, 장엄하신 그런 부처님께서 점안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면과 통하지 못한 분들이 점안을 하면 사불(邪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지요?

돌부처라도 그렇고, 예전에 그렇게 설하고 점안식을 한 모든 부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항상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로 전달을 해서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저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사다 놓고서 점안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꼭 사불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은 절대로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의 50%만 갖고 산다면 정신세계의 50%가 걸려서 영 영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맥만 있고 정맥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고 정맥만 있고 동맥이 없다면 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고, 안에서 그렇듯이 바깥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전부, 상대와 서로 말로 통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저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잘 행하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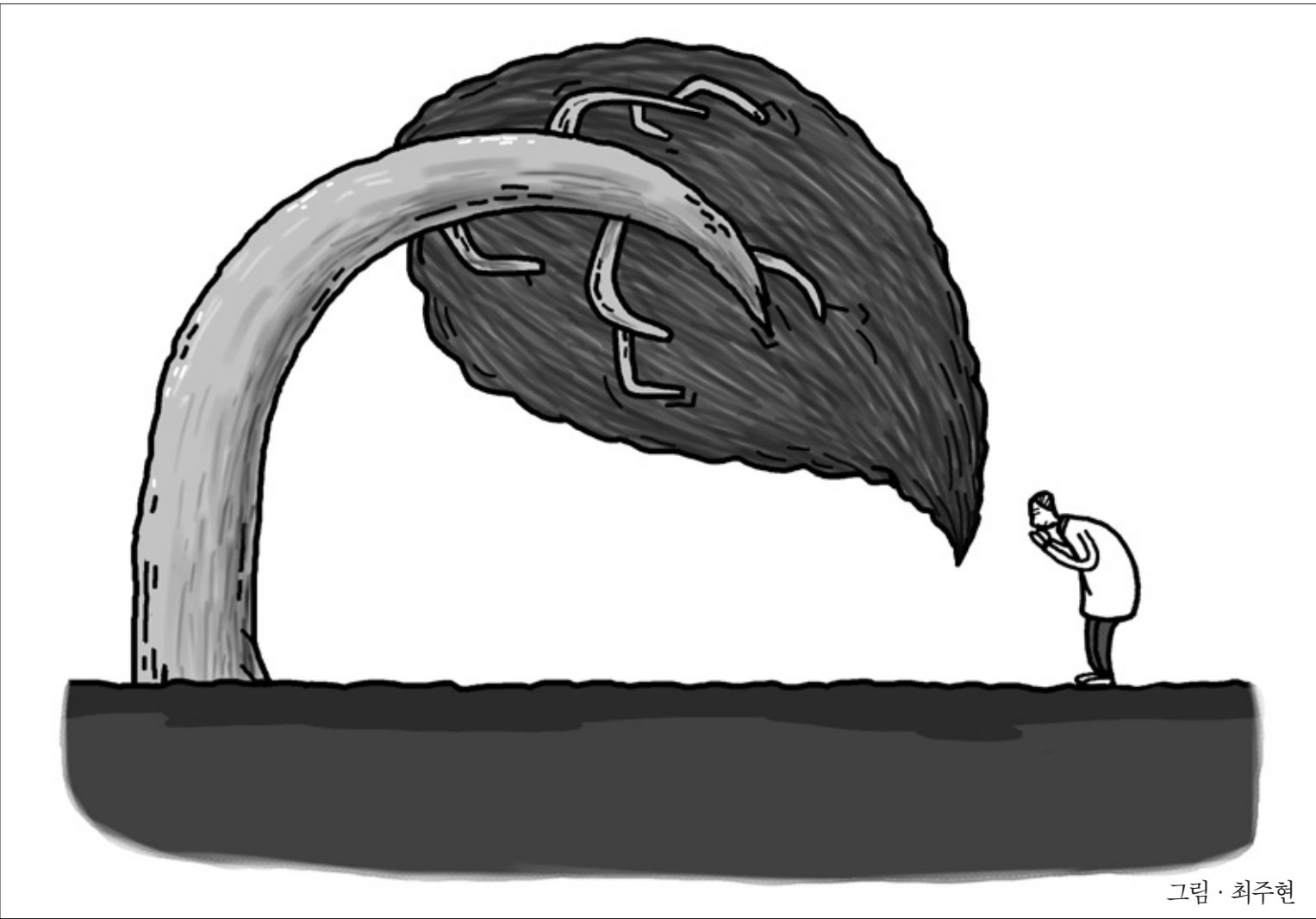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자기 뿌리입니다. 자기 몸은 나무와 같고 자기 뿌리는, 뿌리라는 것은 때려야 뚫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판 뿌리, 판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밟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분과 에너지를 달라고 해도 거기서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뿌리만이 흡수를 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아무리 시주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였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양 무제더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 도리를 알고 행해야 나한테 공덕이 있고 이득이 있고 나의 마음이 발전하고 나의 창조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내가 정을 이롭게 하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타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차만

별의 각자 여러분이 모두 뿌리가 있듯이 또 청산에도 다 제각각... 풀 한 포기라도 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뿌리만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제 나무를 살립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그렇죠.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죠.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지금 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모두, 그 생명이, 모습이, 의식이 있습니다. 판 떼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또는 생사윤회의 모든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도 애고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자동적인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그 입력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항상, 네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뿌리에다가 놓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직접 직결해서 뇌야 통신이 돼서 두 뇌로 올라가서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즉 결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대로 작용을 해 줍니다. 그 작용을 해 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려야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선장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이 소립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별난 게 아닙니다. 좋게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모든 걸 남

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누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고 내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데 '너한테서 모든 것이 나온 거니까 현 물도 너만이 새 물로 바꿔 쓰게 할 수 있다.' 하고 돌려놓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내면의 한 구멍에다 넣고 한 구멍에서 배풀어진다. 넣고 꺼내는 건 한 구멍이지 두 구멍도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포항의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여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담겨질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담겨질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으로 퍼 줬던들 자기 그릇이 작다면 담겨질 않고 그릇 위로 모두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것은, 산과 들과 물이 있습니다. 허공에는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과 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산만 하더라도 그렇고 들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고 다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에서, 즉 말하자면 철분이라든가 화분이라고 할까요? 화약기가 있는 분, 지기, 수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뿌리에서 함유시켜서 모든 것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소인에 불과합니다. 대의적으로 원 근본에서 자아내서, 즉 샘물이 나오는 데서 샘물을 퍼 쓰야지 묵은 물에서 퍼 쓰면 그것은 썩은 물을 먹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기를 빼내지 못해서 그냥 병이 나고 병

26면으로 계속

##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사격검정)

#### 교육 과 목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종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쇼소발호역

#### 교육 기 간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접수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 지부 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호 남 교 육 원 063-288-5623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전 북 의 산 교 육 원 063-854-1060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단청분야의 대혁신!!!

#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종의 수석판제자

불광미술원

단청,행화,개금  
3절장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